



: 2017-12-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1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김종근(기소),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관리업무를 총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거제시 E에 있는 F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의 기름을 주유하기로 업무협약을 하였으므로 회사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만 기름을 주유하고 대금을 결제해야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G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그가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등에 16,675,510원 상당 주유대금을 위 회사 자금으로 결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16,675,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 정비 실적 보고서, 전표 사본, 전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회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위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합계 130,10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4,585,000원을 위 회사 법인계좌 등에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45,515,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 예금계좌(국민은행 I)를 통하여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1. 8.부터 2014. 12. 19.까지 합계 130,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 중 합계 84,585,000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피고인 개인 예금계좌(국민 J)로 입금한 47,735,000원 + 피해자 회사 법인 예금계좌(경남은행 K)로 입금한 36,85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로 차량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아닌 점, ② 노동조합이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임차를 의뢰하면, 피해자 회사의 배차담당자가 배차지시서를 작성하여 차량운전기사에게 전달하고, 차량운행을 마친 차량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와 함께 배차지시서를 다시 배차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는 배차담당자로부터 배차지시서를 전달받아 노동조합의 차량임차료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차량임차료가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괄하여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차량임차료와 관련하여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던 점, ③ 피해자 회사가 전세버스의 부족으로 다른 여행사의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노동조합에 임차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차량임차료를 지급받아 이를 다른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예금계좌(국민은행 I)를 통하여 노



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여행사에 지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0,100,000원 중 10,600,000원을 노동조합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기도 점(노동조합의 L는 이 법정에서 차량임차료를 미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차량이용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임차료를 반환받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노동조합의 차량임차료 정산액 5,300,000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6. 2. 15. 5,3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2015. 1. 29. 이미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5,3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복 지급된 5,300,000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45,5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명수 _____



: 2017-12-29

범 죄 일 랑 표

순번	거제일자	거제금액(원)
1	2009-01-08	1,200,000
2	2009-01-19	1,600,000
3	2010-11-11	3,900,000
4	2010-11-30	1,300,000
5	2010-12-20	2,600,000
6	2011-01-11	450,000
7	2011-02-25	400,000
8	2011-03-31	2,600,000
9	2011-04-01	550,000
10	2011-05-04	2,700,000
11	2011-05-04	450,000
12	2011-05-31	750,000
13	2011-06-09	300,000
14	2011-06-17	1,000,000
15	2011-09-16	900,000
16	2011-09-16	450,000
17	2011-10-10	450,000
18	2011-11-14	4,200,000
19	2011-11-29	1,300,000
20	2011-11-30	3,900,000
21	2011-12-08	400,000
22	2012-01-20	400,000
23	2012-01-30	3,900,000
24	2012-02-23	400,000
25	2012-04-25	2,700,000
26	2012-06-04	3,300,000
27	2012-06-04	1,300,000
28	2012-07-11	200,000
29	2012-07-13	3,600,000
30	2012-07-16	800,000
31	2012-07-20	800,000
32	2012-07-23	7,000,000
33	2012-07-29	3,900,000
34	2012-07-29	6,500,000
35	2012-09-05	3,900,000
36	2012-09-05	1,300,000
37	2012-11-12	4,200,000
38	2012-11-28	1,300,000
39	2012-12-14	4,200,000
40	2013-01-04	450,000
41	2013-02-05	500,000
42	2013-02-25	500,000
43	2013-03-29	400,000
44	2013-04-16	420,000
45	2013-04-16	80,000
46	2013-04-19	3,300,000
47	2013-05-02	500,000
48	2013-05-24	500,000
49	2013-05-28	600,000
50	2013-05-28	600,000
51	2013-06-21	3,600,000
52	2013-06-24	500,000
53	2013-07-02	300,000
54	2013-07-15	3,600,000
55	2013-11-06	550,000
56	2013-11-15	4,200,000
57	2013-12-06	1,400,000
58	2013-12-17	4,200,000
59	2013-12-27	3,900,000
60	2014-01-07	2,600,000
61	2014-02-26	1,000,000
62	2014-02-27	500,000
63	2014-04-24	4,200,000
64	2014-05-02	500,000
65	2014-06-10	200,000
66	2014-07-03	200,000
67	2014-07-28	300,000
68	2014-11-10	4,200,000
69	2014-12-02	1,100,000
70	2014-12-19	4,200,000
	합계	130,100,000

검찰-2016-332-11056-BAD00146387115

2016-12-27 1/1